



반숙진 예창무용단

대공연



티켓에매처 : 교보문고, 종로서적, 을지서적, 영풍문고, 각인터넷 예매처

티켓링크 : 1588-7890(www.ticketlink.co.kr)

일시: 2001년 11월 26일(월요일) 오후 7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반숙진 예창무용단 대 공연

공연일시 • 2001. 11. 26(월) 오후 7시

공연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주최 • 한국고전무용 중앙협회

공연주관 • 예창무용단

공연후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문화원

공연협찬 • 대호상사(대표 정봉남)

• 대학학원(이사장 김승제)



1부

- 지전 반속진 단장 외 12명
- 비나리..... 이광수 외 20명
- 태평성대 반속진 단장 외 42명
- 경기민요 이춘희(57호)경기민요 보전회찬조출연 7명
- 부채춤 반속진무용단원 32명

2부

- 승무..... 반속진 단장
- 강강술래 반속진 무용단원 30명
- 화정 반속원 외 13명
- 풍물판굿..... 이광수사물단 20명
- 진도걸북춤 반속진단장 외 16명



사회자 반혜라
..... 약력

- ◆연극배우
- ◆극단 “가교” 에서 활동중
- ◆악극 “비내리는 고모령”
- ◆“무너진 사랑탑” 출연

도와주신 분들

- 안무총지휘 반속진 단장
- 무대연출 김희선
- 기획 금동석
- 음악 반주악사 : 이광수사물단
 - ◆상쇠 : 이광수 ◆장고 : 유인상
 - ◆징 : 이영광 ◆북 : 고종우
 - ◆태평소 : 김동남
- 영상 지화춘, 김인환
- 의상 미미한복, 규수방의상실



탁 병 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전통 예술을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숙진 예창 무용단] 이 세종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통 무용 대공연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양천구청장으로 재임하던 1992년 5월 21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반숙진 단장님과 함께 [양천구 예창 무용단]을 창단하고 양천구청 임시 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진지도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도 반숙진 단장님의 뛰어난 기량과 즐기찬 전통예술 혼으로 단원들을 열심히 지도하여 1993년 11월 6일 [양천구청 개청 4주년 기념 공연]에서 전통예술의 진면목을 보여줌으로서 전통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갈채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천구 예창 무용단] 은 단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실력을 갈고 닦아 각종 국내·외 초청공연에 참가하여 좋은 평을 받는 등 크게 성장 된 모습을 보면서 뜻을 함께 했던 저로서는 참으로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전통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

이제 문화 경쟁력이 국가 경제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값진 전통예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세계 문화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메트로폴리스 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반숙진 예창 무용단의 이번 [우리 춤 대공연] 이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본 공연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반숙진 예창 무용단 단장님을 비롯한 출연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격려사



박 병 천

중요무형문화재

참신한 자세로

노력하는 춤꾼이 되기를...

반숙진 무용단장은 세월의 흐름을 아랑곳않고 오직 춤만을 위하여 정진하여 왔다.

어찌보면 나의 과거에 어려웠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같아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도 없지 않으나 이제 한 무용가로 성장함을 보면서 오직 우리 무용계의 일원이 되어 이 나라 무용계의 “맥”을 올바르게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동안 양천구에 “예창무용단”을 창단하여 우리 전통 무용을 열정과 애정으로 많은 제자들을 열심히 지도해 왔으며, 또한 반숙진 단장의 탁월한 예술적 기량과 인간됨으로 인하여 많은 선배, 동료들로부터 장래가 기대되는 춤꾼으로 인정받은 것이 오늘의 이 무대를 만들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반숙진예창무용단 우리춤대공연이 무용가로서 완성된 무대라기 보다는 무용가로서의 시작이라 생각하면서 항상 참신한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 무대를 빛내주고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무용가족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냉철한 채찍이 있어서 반숙진단장의 무용생활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2001. 11. 26

초대말씀



반 숙 진

예창무용단장

예창무용단 “우리춤대공연”을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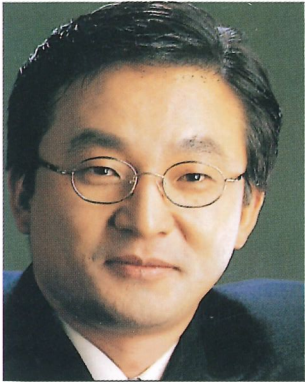
저는 양천구에 “예창무용단”을 창단하고 다년간 우리전통무용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단원들 지도에 진력해왔습니다. 이번 공연이 그간 저의 단원들과 함께 열심히 갈고 닦은 기량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더욱성장 할수 있는 기회로 삼고저 합니다. 우리 전통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악동호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전통무용의 값진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문화시장에 진출하여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도적역할을 담당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의 공연구성은 우리 전통무용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부채춤을 비롯하여 태평성대, 진도걸북춤, 지전, 화정 ... 등을 적절히 구성하고 우리 국악계의 원로이신 명인 이광수 선생님의 지휘로 고유한 전통 반주악사의 출현으로 고품을 살려 무대전체 분위기를 조화있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춘희(57호)경기민요 보존회·소리한마당을 배치함으로 공연 전체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관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특히 본 공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고건 서울특별시장님을 비롯하여 협조하여주신 관계 기관장님과 내·외귀빈여러분 그리고 예창무용단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사합니다



원 희 룡

국회의원

반숙진 예창무용단의 '우리춤 대공연'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통예술이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으면서도 국내에서도 큰 호응을 받지 못
해 왔습니다. 그것은 외국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상품가치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
에서 빚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요즘 들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
것을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려 우리 문화 예술의 힘을 보이자는 국민적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민간차원 뿐만 아니라 보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이런 분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민들은 아낌없는 성
원을 보낼때 우리 전통예술이 세계적인 예술로 발전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힘을 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공연을 준비하신 반숙진 예창무용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우리 전통예술의 밝은 앞날을 기대합니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1. 11. 26



추 재 엽

양천사랑회 회장

전통문화의 풍류와 여유를 계승하는 혼을 불어넣은 공연을 축하드립니다.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반숙진 예창무용단'이 문화예술의 상징인 세종문
화회관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무용을 공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정보화로 인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만을
추구하고, 국적없는 대중문화의 범람으로 가치관의 혼란은 물론 선조들의 멋
과 얼이 면면히 깃 든 전통문화 예술이 관심 밖의 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조류와도 불구하고 우리, 반숙진 예창무용단,은
바쁜 일상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의 풍류와 여유를 계승하고자 하는 단원들로
구성된 예술단" 으로서 전통무용의 저변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
이 노력해 오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전통무용을 계승 발전시킨 무용가로서 자랑스런 시민상을 수
상하신 진정한 예술가 반숙진 단장님과 예창무용단 단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에 더하여 혼을 불어 넣은 오늘의 공연" 은 우리 전통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더욱 값진 것으로 일깨워 줄 것이며, 우리 양천구가 문화예술
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단장님과 단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경
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11.26



허 완

양천구청장

만추의 호시절을 맞이하여

이곳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는 반숙진예창무용단의 우리춤 대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숙진 예창무용단은 바쁜 일상 생활속에서도 우리 전통무용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하여 무용인구의 저변확대와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춤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게 대중화에 노력하여 왔으며, 그동안 많은 국내공연과 해외공연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이해시키고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삶의 활력을 부여하는 등 우리민족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무용은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유실되고 사장되거나 왜곡되고 그와 동시에 외래의 무용조류가 유입되면서 육성발전을 위한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 발전 못지않게 문화가 곧 국력이 되는 새천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아 우리는 시민들이 생활가까이에서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문화단체들을 지원하는 등 문화진흥을 위해서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좋은 작품으로 격조높은 공연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반숙진 단장님과 단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숙진 예창무용단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01. 11. 26



김 승 제

대학학원이사장
양천문화원장

축하합니다!

한 예술인의 춤이라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오랜 동안 수련과 창조를 향한 노력이 "우리춤 대공연"으로 큰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춤은 인생의 맛을 우려내고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멀리 원시 종합 예술(Balldance)의 체천 행사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며 시작된 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예술적인 멋으로 승화시킨 오랜 예술이며 가장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또한 우리의 춤은, 함께 춤추면서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게 하여 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다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춤을 흔히 멋과 흥의 춤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춤이 공동체의 삶과 관계되었다 하더라도, 다양성을 발휘하는 강한 개성이 집약된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적 생활선상에서 획득된 공동적 감수성, 공동체적 유대감과 개인의 탁월한 표현 기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숙진 예창 무용단의 "우리춤 대공연"을 통해 한국춤의 강한 개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한 예술인의 새로운 창조를 향한 노력 앞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노력이 전통 무용 및 현대 무용의 교류, 다른 예술 분야와의 교감이나 국제적 교류의 큰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문화의 세기라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선진 각국이 벌이고 있는 문화 전쟁에 대범하기 위해서나, 산업화로 인해 전통의 모습이 잊혀져 가는 상황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술에 대한 열정과 창조를 향한 노력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1. 11. 26



태평성대

태평성대는 태고의 태평성대를 기리는 춤이며 궁중무용의 복식으로 조선왕조의 장식적 전통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춤사위는 손목에 메달린 한삼을 이용해서 엮어가며 유동선의 율동감이 창조되는 춤이다.

강강술래

음력8월 한가윗날 밤에 곱게 단장한 부녀자들이 수십 명씩 모여 손에손을 잡고 원형으로 느려서서 강강술래라는 후렴이 붙은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돌면서 뛰노는 놀이이다.





지전

무속에서 전래된 춤으로 동서남북 사방신에게 돈을 뿌려 신을 달래던 춤으로 현재는 종이로 만든 지전을 양손에 들고 음율에 맞추어 아름다운 선을 그리며 사방신을 달래는 춤으로 그 춤사위가 오묘하며 농약적으로 음율에 맞추어 추는 지전은 고전미가 특이하다.

부채춤

이 춤은 한국무용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흥미있는 춤 중의 하나이다. 1930년대 초에 무당 춤의 부채에서 소재 를 얻어 만들어진 춤으로 의상은 궁중복 색에서 당의를, 족도리는 신부의 화관을 쓰고 화려한 목단이 그려진 부채를 양손에 들고 추는 춤으로 어느 춤자리에서나 애용되어 추어지는 춤이다.





승무

승무는 한국 민속무용의 가장대표라고 할만큼 멋이 있고 품위가 높은 춤이다. 춤의 동작은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한과 흥이 인간의 희비를 높은 차원에서 극복하며 자유의 애정의 경지로 승화한 춤이라고 할수 있다. 장삼을 입고 춤을 추다가 북가락의 연타, 그리고 다시 춤으로 이어지며 음악은 염불 도드리 타령, 빠른타령, 굿거리 북가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정

근대 무용계의 반숙진 단장이 만든 민속무로써 굿





진도걸북춤

농경사회에서 일꾼들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북소리와 춤이 갖는 이미지를 미적구조에 부합하여 만든 작품이다. 두레곳에서 농악으로 농악에서 다시 춤으로 마당 놀이에서 쓰이던 가락과 제의의식에서 쓰이던 가락과 몸짓이 서로 부합하여 멋과 흥, 그리고 신명을 돋우며 춤사위는 폭이 넓으면서 몸놀림이 크며 남성적이면서 유하고 직선미와 곡선미를 가락에 맞추어 조화를 이룬다.



이광수 사물단 (특별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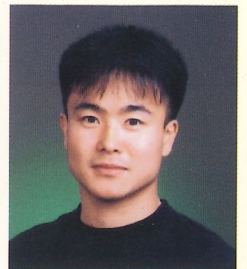
김동남



고종우



이영광



이동원



류근철

유인상

조병혁
(외12명)

이광수

비나리, 상쇠

비나리는 소망이다. "빌다"의 옛명사형인 비나리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방해가 되는 여러 액살을 물리치고 순조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바를 기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천지 생성, 예사 사람이 부정칭의 신격에서 끼어든 살을 푸는 살풀이, 일년동안 다가드는 액을 막아주는 액막이다. 수명장수와 부귀복덕을 비는 덕담, 축원 등으로 구성된 비나리는 예전에 마을의 우환과 질병을 몰아내고 특히 만복을 빌어 마을 구성원들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던 것이다. 특히 이번에 연희되는 비나리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풍물판굿

풍물놀이 진짜 재미는 판굿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을고을마다 고사굿을 치다가 밤이 되면 햇불을 밝히고 마을 사람들에게 걸립패의 특기를 보여주는 판굿이란? 판에 짜여진 굿. 즉 약속된 장단과 놀음사위로 이루어진 잽이들의 뛰어난 기묘와 멋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일찍이 놀이속에 무예를 익히고 진법을 터득하는 오방진굿이나 돌림벅구 놀이는 태풍을 동반한 회오리바람과 같은 무서운 남성적 힘이 있는가하면 풍년가를 부르며 덩실거리는 굿거리 장단 춤속엔 여성적 부드러움이 있으며 특히 이번 판굿은 잽이들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관아놀음의 화려함은 더욱 돋보일 것이다.

예
창
무
용
단
장

반
숙
진



주요 경력 사항

		서울에서 출생
		성금련, 지영휘, 박병천 선생으로부터 사사
1992.	5. 21	양천구 예창무용단 창단
1993.	2. 5	양천구 청사내 전통무용교실 원장 취임
1994.	11. 11	프랑스 파리 민속예술단 초청합동공연(서울정도600년 기념공연)
1995.	5. 7	한국고전무용 중앙협회 회장 취임
1996.	12. 4	롯데문화센터 무용강사
1998.	2. 18	양천문화원 이사
1998.	5. 7	반숙진 무용 발표회
1998.	6. 7	양천문화대학 강사
1998.	12. 10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미풍양속부문)
1999.	2. 5	반숙진 예창무용단 이웃돕기 자선공연
1999.	7. 28	캐나다 한인모국 방문 초청공연
1999.	11. 27	캐나다 CALGARY 새천년맞이 한민족 큰잔치 초청공연
2000.	10. 12	예술의 전당 예약당 반숙진예창무용단 전통무용 대공연
2001.	3. 18	관악 종합문화체육센터 무용강사



반숙원



강정숙



박경자



유경희



이지연



고길영



김인순



오영숙



심영미



권숙자



김주연



이영순



김민주



백복현



김정애



이정님



강상항



이영미



강영자



전순남

출 연 진



이경란



정희선



최지연



강야모



정순례



이종임



최예성



옥희순



이점례



홍종성



박소정



유덕녀



정명숙



권분교



김순호



김종순



송수련



김경림



이순자



이종순



홍옥환



조정애



이은주



박순녀



조정현



이미순



강영옥



지영선



이정숙



최송희



권요원



곽정순



김경희



김순자



찬조출연

이준희57호 경기민요 보전회



남궁랑

중요무형문화재57호
경기민요이수자



조경희

중요무형문화재57호
경기민요이수자



강효주

중요무형문화재57호
경기민요이수자



손화자

중요무형문화재57호
경기민요이수자



양윤정

중요무형문화재57호



최자영

중요무형문화재57호



김명순

중요무형문화재57호

새 천년 맞이 켈거리 한민족큰잔치

켈거리 실험 창립 20주년 기념

Proud of our Partnership with the Korean Canadian Businessmen's Association







여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전통무용의 전당!
반숙진 무용교실로 오세요!

양천구민회관 지하 1층(열린마당)

반숙진전통무용교실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404-97
- 전화 : 02-651-0359
- H·P : 017-269-0388/011-9077-0388